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3, pp. 141-150, 2020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3.141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미라[1], 지민경[2*]
[1]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2]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Factors Affecting Cosmetic Surgery Experi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i-Ra Lee[1], Min-Gyeong Ji[2*]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미용성형 경험과 관련 요인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경기, 충청, 전라도 여대생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hi-square test, T-test, Binary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용성형 경험이 66.1%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미용성형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정보원으로는 '가족 및 주위사람'이 45.9%로 가장 많았고, 미용성형 종류는 '눈 성형'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관심도와 미용성형인식도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용성형 경험에 관련된 요인은 학년, 용돈, 외모관심도로 나타났고, 변수들의 설명력은 15.6%였다. 미용성형 정보에 대한 기초자료의 마련과 올바른 미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미용성형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미용성형, 미용성형인식, 여대생, 외모관심도,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and its related factors in order to establish the correct value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appearance. Data were collected from 283 female college students in Gyeonggi, Chungcheong, and Jeolla-do provinces, and analyzed by Chi-square test,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the experience rate of cosmetic surgery was 66.1%, and the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was high as the grade was increased. The most common source of information was 'family and people around' at 45.9%, and the cosmetic surgery type 'eye surgery' was the highest at 25.8%. Appearance of interest and cosmetic surgery recognition were higher than those who had no cosmetic surgery experience. Factors related to cosmetic surgery experience were grade, allowance, and appearance intere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basic data on cosmetic information and to develop a program to establish proper beauty values, and education and counseling to make rational decisions about cosmetic surgery will be required.

Key Words : Cosmetic surgery, Cosmetic surgery recognition, Female college students, Appearance interest,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Min-Gyeong Ji(air638@hanmail.net)
Received January 21, 2020
Revised February 13, 2020
Accepted March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1. 서론

현대사회는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외모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1]. 외모 지상주의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 사회문화현상은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감은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며 신뢰적인 요소로 작용한다[2]. 특히 20대의 젊은 여성에게 외모는 자존감, 대인관계, 취업뿐만 아니라 이성교제와 결혼 등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3].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미용성형이다[3]. 미용성형이 외모를 가꾸기 위한 많은 방법들 중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나타내어 미용성형을 외모 가꾸기의 방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4]. 최근 대학생 92%가 외모를 바꾸고 싶은 적이 있다고 하여 성형에 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미용성형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단편적인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써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5].

1980년 이후 매스미디어와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외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변화가 보다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면서 미용수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6]. 미용성형은 단순히 외부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앞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목적과 함께 삶의 질과도 관련이 높아졌다. 미용성형이란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와 노력으로 미용을 위해 병원에서 시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눈, 코, 턱 등의 얼굴성형과 가슴, 복부 등의 신체부위 성형, 지방흡입, 기미, 주근깨, 박피레이저, 기타 주사용법 등이 포함된다[7].

현재 우리나라의 성형열풍은 다양한 대중매체의 보급과 그에 따른 성형광고 등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8]. 그 결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낮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2].

한국갤럽이 실시한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조사(1994/2004/2015년 비교)에서 응답자의 86%가 외모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대답했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인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모의 중요성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20대 여성의 성형수술 경험률은 1994년 5%, 2004년 13%, 2015년 31%로 증가한다고 조사되었다[9]. 이렇듯 여대생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외모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성형과 같은 외모상향추구 행동을 하고 있다[10]. 하지만 미용성형의 증가에 따라 부작용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용성형 관련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성형수술 관련 의료 소비자 피해가 연 100건 이상으로 이 중 부작용 피해가 절반 이상이었다[11]. 미용성형수술 후 긍정적인 효과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는 성형수술을 무분별하게 받게 하고 이러한 일시적, 심리적 효과는 단지 외모를 변형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2].

대학생은 향후 독립적인 성인기의 신체·심리적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습관이 정착되는 시기로, 미용성형수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13]. 그러므로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감소시킬 대안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시작인 여대생의 미용성형경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미용성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나아가 전문직으로의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경기, 충청, 전라도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방법을 설명하고 서명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version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Odds Ratio 1.5, 검정통계량 기각력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로 예측변수를 감안하였을 때, 표본 크기 최소인원은 275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해 300부를 배부하여 이 중 무성의한 설문지 17부

를 제외하고 총 28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미용성형 경험, 미용성형 특성,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인식, 자아존중감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학년, 한 달 용돈, 학과, 학과 지원동기, 이성친구 유·무 5문항, 미용성형특성은 미용성형경험 인식도, 미용성형경험여부, 미용성형 종류, 미용성형 주요 정보원, 미용성형 동기, 메이크업 시작 시기 6문항을 포함하였다.

2.2.1 미용성형 경험

미용성형 경험은 이혜경의 연구를 참고하여 대상자에게 국제성형수술학회의 연간통계 자료 보고 시 제공되는 미용성형 종류 13가지 항목 중 경험한 것을 체크하도록 하였다[15]. 하나 이상 체크한 경우를 미용성형 경험 '있다'라고 하였고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미용성형 '없다'라고 하였다.

2.2.2 외모관심도

외모관심도란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신체장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16]. 측정도구는 김묘성의 번안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7]. 12문항으로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902였다.

2.2.3 미용성형인식

미용성형인식이란 미용을 위해 병원에서 수술하는 모든 성형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신체의 외모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 욕구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2]. 측정 도구는 허은숙의 선행연구를 수정·보완 하였다[18]. 9문항으로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907이었다.

2.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한다[19].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한 전현숙과 이미라의 도구를 사용하였다[20]. 1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기준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가 0.945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미용성형경험은 카이제곱 검정으로 교차분석을 하였고, 미용성형경험 유무에 따른 외모관심도, 미용성형 인식, 자아존중감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미용성형 경험 관련요인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 경험

대상자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 경험은 Table 1과 같다. 전체대상자의 미용성형 경험 있는 경우 66.1%, 경험이 없는 경우는 33.9%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미용성형 경험이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53.8%, 71.0%, 73.2%로 나타났다($p<0.01$). 한 달 용돈은 '20만원 이하'와 '20~30만원'인 경우 미용성형 경험이 각각 52.8%, 64.0%를 나타났고, '40만원 이상'인 경우 82.1% 높게 나타났다($p<0.01$). 학과 지원 동기가 '취업보장'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미용성형 경험이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미용성형 경험이 67.8%,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 64.8%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미용성형관련 특성

대상자의 미용성형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미용성형 경험 인식은 성형함이 40.6%, 성형안함이 59.4%로 나타났으나, 실제 미용성형 경험은 있음이 66.1%, 없음이 33.9%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정보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인 경우가 45.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SNS광고 45.2%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동기는 용모에 자신감 없어서가 38.9%로 가장 높았고, 메이크업 시작 시기는 중학교가 51.9%, 고등학교 32.5%로 나타났다.

3.3 미용성형경험 종류

대상자의 미용성형경험 종류는 중복응답으로 Table 3과 같다. 미용성형은 눈 성형이 25.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미·점 제거 17.1%, 반영구화장이 15.5%, 필러·보톡스 12.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283)

Characteristics	Division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Total(%)	x^2(p)	p-value
		Yes(%)	No(%)			
Grade	1st	50(53.8)	43(46.2)	93(32.9)	9.476	〈0.009**
	2nd	66(71.0)	27(29.0)	93(32.9)		
	3rd	71(73.2)	26(26.8)	97(34.3)		
Monthly allowance (10,000won)	≤20	28(52.8)	25(47.2)	53(18.7)	8.946	〈0.030*
	20~30	48(64.0)	27(36.0)	75(26.5)		
	30~40	79(68.1)	37(31.9)	116(41.0)		
	≥40	32(82.1)	7(17.9)	39(13.8)		
Motivation to choose major	Employment Guarantee	101(73.2)	37(26.8)	138(48.8)	8.499	〈0.036*
	Encourage parents and people around	53(63.1)	31(36.9)	84(29.7)		
	According to grades	23(59.0)	16(41.0)	39(13.8)		
	According to aptitude	10(45.5)	12(54.5)	22(7.8)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ied	25(67.6)	12(32.4)	37(13.1)	0.830	0.684
	Normal	81(63.3)	47(36.7)	128(45.2)		
	Satisfied	81(68.6)	37(31.4)	118(41.7)		
Boy friend	Yes	80(67.8)	38(32.2)	118(41.7)	0.267	0.613
	No	107(64.8)	58(35.2)	165(58.3)		
Total(%)		187(66.1)	96(33.9)			

* : p〈0.05, **: p〈0.01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cosmetic surgery (N=283)

Characteristics	Division	N	%
Cosmetic surgery experience awareness	Yes	115	40.6
	No	168	59.4
Cosmetic surgery experience	Yes	187	66.1
	No	86	33.9
Source of cosmetic surgery information	Family and people around	128	45.9
	Internet·SNS	126	45.2
	Plastic Surgery Clinic Phone, Visit	13	4.7
	TV	11	3.9
	Newspapers·Magazines	1	0.4
The main motive of cosmetic surgery	Lack of self-confidence in appearance	82	38.9
	To improve the skin	41	19.4
	For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1.9
	For employment	20	9.5
	Because other people do	31	14.7
	To be prettier.	19	9.0
	For therapeutic purposes	14	6.6
Makeup Start Time	Elementary school	17	6.0
	Middle school	147	51.9
	High school	92	32.5
	After college	21	7.4
	No	6	2.1
		283	100

Table 3. Type of cosmetic surgery experience (N=283)

Cosmetic surgery	Division	N	%
	Eye plasty	95	25.8
	Rhinoplasty	7	1.9
	Lipoplasty (abdomen, arms, legs)	7	1.9
	Breast surgery (breast augmentation, breast reduction)	0	0
	Facial contouring surgery (forehead, chin)	0	0
	Overall height increase	0	0
	Filler, Botox, Wrinkle remove surgery	44	12.0
	Orthodontic treatment for cosmetic	42	11.4
	Teeth whitening for cosmetic	33	9.0
	Lasik, Lasek surgery for cosmetic	11	3.0
	Semipermanent make-ups	57	15.5
	Hair line, Hair implants	9	2.4
Multiple response	Dermatoplasty (chemical peels, skin care, spot removal)	63	17.1
		368	100.0

Table 4. Appearance interest, Cosmetic surgery recognition, Self-esteem according to cosmetic surgery (N=283)

Contents	Cosmetic surgery experience Mean±SD		p-value
	Yes	No	
Appearance interest	3.51 ± 0.54	3.23 ± 0.55	<0.001**
Cosmetic surgery recognition	3.15 ± 0.71	2.88 ± 0.60	<0.002**
Self-esteem	3.56 ± 0.81	3.59 ± 0.77	0.797

* : p<0.05, **: p<0.01

Table 5. Factors related cosmetic surgery experience

Characteristic	Cosmetic surgery experience		
	OR	95% CI	p-value
Grade			
1st	1		
2nd	0.487	0.255 - 0.930	<0.029
3th	0.892	0.452 - 1.762	0.743
Monthly allowance			
≤20	1		
20~30	0.322	0.113 - 0.917	<0.034
30~40	0.472	0.172 - 1.295	0.145
≥40	0.552	0.213 - 1.431	0.221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ied	1		
Normal	1.005	0.407 - 2.483	0.991
Satisfied	.675	0.369 - 1.235	0.202
Boy friend (YES)	0.927	0.529 - 1.623	0.791
Appearance interest	2.148	1.245 - 3.704	<0.006
Cosmetic surgery recognition	1.336	0.862 - 2.069	0.195
Self-esteem	0.828	0.582 - 1.177	0.293
x2(p) 33.763(<.001)			
R2 0.15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3.4 미용성형 경험여부에 따른 외모관심도, 미용성형 인식도,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미용성형 경험여부에 따른 외모관심도, 미용성형 인식도. 자아존중감은 Table 4와 같다. 외모관심도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 3.51 ± 0.54로 경험이 없는 경우 3.23 ± 0.55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용성형 인식도도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 3.15 ± 0.71로 없는 경우 2.88 ± 0.60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은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 3.56 ± 0.81, 없는 경우 3.59 ± 0.77로 나타냈다.

3.5 미용성형 경험에 관련 요인

대상자의 미용성형 경험에 관련된 요인은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X^2=33.763, p<0.001), Cox & Snell의 결정계수는 0.112이며, Nagelkerke의 결정계수는 0.156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11.2%, 15.6%임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 중 학년, 한 달 용돈, 외모관심도가 미용성형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미용성형 경험이 0.48배(OR=0.487, 95%CI=0.255, 0.930), 3학년은 0.89배(OR=0.892, 95%CI=0.452, 1.76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용돈은 20만원 이하에 비해 20~30만원 이상인 경우 미용성형 경험이 0.32배(OR=0.322, 95%CI=0.113, 0.917) 높게 나타났다. 외모관심도 점수가 1단계 올라갈수록 미용성형 경험 가능성이 2.1배(OR=2.148, 95%CI=1.245, 3.704)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여성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욕구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의 변화로 미용성형을 하는 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1]. 미용성형이 취업을 위한 면접 준비와 사회생활 및 주변의 의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능력으로 인식되면서[22],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외모집착, 성형중독 및 성형부작용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경험 실태를 확인하고 미용성형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4년 김영하와 정향인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45.7%가 성형수술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고, 경험한 미용성형의 종류는 외과 39.4%, 비외과 60.6%로 나타났다고 하였다[23]. 김묘성은 2015년 연구에서 간호여대생의 성형시술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학생의 42.9%로 나타났다고 하였다[17]. 2017년 대학생의 미용성형과 피부성형 경험여부를 조사한 황애화 등은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이 37.3%, 피부미용 경험은 40.6%로 나타났다고 하였다[24].

본 연구에서 미용성형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미용성형 13개 항목에 1개 이상 체크한 미용성형 경험이 66.1%로 나타나 다른 연구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미용성형경험에 대해 본인이 인식하는 경험여부는 '성형함'이 40.6%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2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노현희는 미용성형수술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여성은 91.6%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20대 여성의 미용성형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25].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연구마다 사용한 미용성형 실태의 연구도구가 달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미용성형을 외과적 수술에서 국한하여 생각한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쁘띠성형이나 미용성형 목적으로 한 간단한 점 제거까지 미용성형 범위에 있어 높은 경험 실태를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추후 미용성형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용성형관련 연구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연구도구를 이용한 이혜경은 2013년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관한 연구에서 미용성형을 경험한 여대생이 44.1%라고 하였다[15]. 본 연구는 2019년 조사로 과거 2013년 이혜경의 44.1%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여대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정보산업의 발달과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미용성형 기술이 현저히 발전하고 수술 후 회복기간이 빨라지면서 미용성형 경험률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높은 경험률에 비례하여 성형중독 및 부작용 등의 문제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미용성형 수술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교양수업과정에 신체 기준에 대한 건강

한 상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미용성형 경험이 학년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53.8%, 71.0%, 73.2%로 학년이 높을수록 미용성형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학과지원동기에서는 취업보장을 선택한 군에서 미용성형경험이 73.2%로 높게 나타났다. 황예화 등은 학년에 따른 미용성형 경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고[24], 김묘성은 고학년일수록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17]. 또한 이지후와 전현진은 학년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중 미용성형 빈도 간에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3].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회생활을 준비하면서 취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외적인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의 외모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복건복지부 연구에서도 미용성형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학년과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 여대생에서 취업이나 사회진출을 앞두고 성형에 대한 고려와 희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14]. 이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한 취업준비를 위한 올바른 이미지 관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1학년의 성형 경험률이 비교적 높은 만큼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 미용관련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대 여성을 연구한 김영아 등은 외과적 미용성형을 경험 한 대상자는 '안검 미용성형'이 90.5%로 가장 많았고, 비외과적인 미용성형을 경험 한 대상자는 '보톡스 주사'가 56.7%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26]. 여대생을 연구한 이지후와 전현진은 가장 많이 시술한 미용성형은 쌍꺼풀수술 2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반영구화장, 점·주근깨·잡티 제거 순으로 나타났다[3]. 간호여대생을 연구한 김묘성[17]도 눈 수술이 8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코, 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미용성형 경험 부위에서 눈 성형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미·점 제거 17.1%, 반영구화장이 15.5%, 필러·보톡스 12.0% 순으로 나타났다. 눈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부위로 얼굴의 분위기를 나타내어 첫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다른 부위의 성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이 빨라 눈 성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과거에 비해 피부성형과 관련된 필러와 보톡스와 같은 쁘띠성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미용성형을 결정했다면 시술 전 미용성형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용성형과 기타시술의 동기는 '용모에 자신감 없어서'가 38.9%로 가장 높았고 '피부개선', '원활한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미와 김주덕은 미용성형을 하게 된 동기가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부노화 개선을 위해', '주위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5]. 노현희의 연구에서도 미용성형수술을 하게 된 이유로는 '용모에 자신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피부노화의 개선을 위해서' 가 다음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5].

이지후와 전현진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54.7%가 인적 정보원인 주위사람을 미용성형을 위한 정보원으로 이용하였고 다음으로는 상업매체인 인터넷·SNS 광고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3]. 본 연구에서도 미용성형시술 정보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인 경우가 45.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SNS 광고 45.2%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보는 매우 전문적이고 정확해야 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포털의 여성건강 부분에 성형수술 카테고리를 두어 성형수술 부적합 사례, 안전성, 의사의 자격 검증, 신체 추형 장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7]. 우리나라에서도 미용성형에 대한 조직적, 제도적 차원의 대처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모관심도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용성형 인식도도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송경자와 이미숙의 연구에서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하였고[28], 전민지 등도 외모에 대한 관심은 외모관리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라고 하였다[29]. 김묘성은 외모관심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다고 하였고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점수는 성형시술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17]. 이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외모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면서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미용성형 경험에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 결과, 학년, 한 달 용돈, 외모관심도가 미용성형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미용성형 경험이 0.48배, 3학년은 0.8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용돈은 20만원 이하에 비해 20~30만원 이상인 경우 미용성형 경험이 0.32배 높게 나타났다. 황애화 등은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미용성형 경험이 약 2.31배 높다고 하였고, 월 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 경험이 각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에 관한 금전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에 비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 미용성형 경험이 약 9.4배, 피부미용경험이 약 2.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4]. 김영아 등은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관련 경험, 개인내적 상태,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13]. 따라서 미용성형경험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추가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여대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미용성형 경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미용성형 목적이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가 높게 나타나 미용성형을 통해 아름다움과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외모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학년과 외모관심도가 미용성형 관련 요인으로 나타나 미용성형이 취업을 포함한 사회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나친 외모에 대한 관심과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도한 미용성형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올바른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있도록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지역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형 중독에 관한 변인을 추가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등의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미용성형 경험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 충청, 전라도 치위생과 여대생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미용성형 경험은 학년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53.8%, 71.0%, 73.2%로 학년이 높을수록 미용성형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학과지원동기에서는 취업보장이 73.2%로 높게 나타났다.
2. 미용성형 경험 실태는 '성형경험'이 66.1%로 나타났고, 미용성형 경험에 대한 인식도는 '성형함'이 40.6%로 나타났다.
3. 미용성형 정보원으로는 '가족 및 주위사람'이 45.9%로 높았고, 미용성형경험 종류로는 '눈 성형'이 25.8%로 가장 높았다.
4. 외모관심도와 미용성형인식도는 미용성형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5. 미용성형 경험에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 결과, 학년, 한 달 용돈, 외모관심도가 미용성형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여대생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형성하고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이미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H. N. Lee & O. L. Park. (2015). The Effect of Men's Values by Age on Beauty Care Behavior.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ics society, 13(6),* 891-901.

[2] D. J. Han & K. S. Park. (2008). A Study of External Appearance Management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Make-up and Cosmetic surge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4(2),* 622-632.

[3] J. H. Lee & H. J. Jeon. (2019). A Study on Interest in Appearance and Cosmetic Plastic Surgery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5(1),* 10-19.

[4] S. N. Hong. (2013). A Study on Korean Females' Satisfaction with and Thoughts on their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According to Cosmetic Surgery.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4(3),* 349-355.

[5] J. M. Lee & J. D. Kim. (2016). A Study on the of Women's Cosmetic Surgery and Satisfact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2(6),* 1178-1187.

[6] M. S. Shin. (2011). Present and Future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6),* 581-588. UCI : G704-002228.2011.54.6.008

[7] S. J. Byun. (2011). *A Study on the Future Direction of Skin Care through the Comparison of Usefulness and Recognition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Skin Care.* Hansung University, Seoul.

[8] J. S. Jang. (2011). *A study on media-lookism in Korea : focused on TV drama exposure and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9]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56

[10] I. H. Kim. (2014). Sociocultural Influence of Appearance and Body Image on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8(6),* 810-822. DOI : 10.5850/JKSCT.2014.38.6.810

[11]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1628197

[12] M. H. Choi & J. D. Kim. (2007). A study on feeling of women about a esthetic sense and aesthetic surgery according to 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3(2),* 547-566. UCI : G704-001852.2007.13.2.023

[13] Y. A. Kim, D. H. Chae. & H. L. Kim. (2017).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7(1),* 455-464. DOI : 10.5392/JKCA.2017.17.01.455

[14] I. K. Lyoo. (2003). The prevalence of diet and cosmetic surgery and influences on health in college female student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search Report,* Report No.: GOVP1200410182.

[15] H. K. Lee. (2013). Predictors of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according to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 285-293. DOI : 10.5762/KAIS.2013.14.1.285

[16] Y. J. Hwang, K. Y. Jo & T. S. Yoo. (2003). The Study on Cosmetic Surgery Behavior according to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nd Self-esteem. Journal of Fashion Business, 7(4),* 17-25.

[17] M. S. Kim. (2015). Self-Esteem, Appearance Concern, Body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Cosmetic Surgery of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7(1),* 15-29.

[18] E. S. Huh. (2011). *Characteristics of Recognition of Cosmetic Surgery on a University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19] M. Rosenberg. (1973). Which significant other.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6),* 829-860.

[20] H. S. Jeon & M. R. Lee. (2016).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43-651. DOI : 10.5762/KAIS.2016.17.12.643

[21] H. J. Jeon & M. S. Chung. (2010).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esteem on cosmetic surge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6(3),* 734-741.

[22] K. Lee, H. S. Lim & K. S. Chang. (2006). Status of perception for appearance and cosmetic surgery among university freshmen. *The DongGuk Journal of Medicine, 13(1),* 27-36.

[23] Y. A. Kim & I. H. Chung. (2014). Factors Affecting Plastic Surgery Addiction Tendency Among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621-631.

[24] A. H. Hwang, J. W. Kang & S. S. Han. (2017).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on Cosmetic Surgery and Skin Care.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13(2),* 125-132. DOI :10.15810/jic.2017.13.2.005

[25] H. H. Rho. (2014). *A study on awareness and state of cosmetic surgery among female adul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6] Y. A. Kim, H. I. Cho Chung & Y. A. Seo. (2018). Plastic surgery experience and addi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pp. 403-404).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7] http://www.womenshealth.gov/body-image/cosmetic-surgery/

[28] K. J. Song & M. S. Lee. (2009).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Perceptual, Attitudinal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2),* 97-110.

[29] M. J. Jeon, S. E. Jung, S. H. Cho, E. J. Han, J. W. Hyeon & S. H. Ki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mployment, Appeara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4),* 518-526.
DOI : 10.17135/jdhs.2015.15.4.518

이 미 라(Mi-Ra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 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학, 치과재료학, 융합
· E-Mail : lmr3500@hanmail.net

지 민 경(Min-Gyeong Ji)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학, 치의학, 융합
· E-Mail : air638@hanmail.net